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영화 '소셜 네트워크'는 성공의 이면에 가려진 인간의 욕망과 진실에 관한 사회 드라마다. 전 세계 5억명의 온라인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의 실화에 기반 이 영화는 얼핏 보면, 주커버그의 성공에 관한 영화로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영화가 시작되면 숨가쁘게 펼쳐지는 인간과 인간의 욕망과 갈등의 교차가 빛어내는 긴장감이 숨가쁘게 끌려간다.

2003년 가을, 하버드대의 컴퓨터 천재 '마크'는 비밀 엘리트 클럽의 윈클보스 형제에게 하버드 학생들만 교류할 수 있는 '하버드 커넥션' 사이트 제작을 의뢰 받는다. 여기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 '마크'는 인맥 교류 사이트 '페이

퍼컨트는 작곡가 그리그가 입센의 환상시극에 곡을 붙인 것으로 그의 음악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이다. 처음에는 피아노 2중주 형식으로 출판했다가 뒤에 오케스트라로 편곡했다. 이 곡 음악은 5곡의 전주곡을 비롯하여 행진곡, 춤곡, 독창곡, 합창곡 등 모두 23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2막에서 페르컨트의 귀환을 에타게 고대하는 솔베이 그의 심정을 노래한, 너무나 유명한 '솔베이의 노래'는 오늘날 크로스오버나 팝으로도 편곡되어 널리 사랑받고 있다. 최근에는 전곡보다는 유명한 선율만을 발췌한 관현악 모음곡으로 연주, 녹음된 경우가 많다.

추천하고자 하는 연주는 아버지 지휘자인 네메 예르비와 아들 지휘자인 파보

영화 '소셜 네트워크' 중 그리그 '페르컨트 모음곡'

결국 홀로 남은 자를 위한 노래

스북'을 개발, 절친 '알도'의 도움으로 사이트를 오픈한다. '페이스북'은 유명한 넵스터의 창시자 '손'의 참여로 전세계로 번지면서 '마크'는 기업가치 58조원, 전세계 최연소 억만장자가 된다. 하지만 그 순간 윈클보스 형제는 물론 '알도'마저 전대미문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버드 전체들간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다. '5억명의 온라인 친구들이 생긴 순간, 진짜 친구들은 적이 되었다'는 카피 문구가 이 영화의 핵심을 완벽하게 요약해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영화에서는 윈클보스 형제의 하버드 탐이 조정경계에서 지는 장면에서 클래식 음악이 등장한다. 노르웨이의 작곡가 그리그의 저 유명한 페르컨트 모음곡 가운데 '산 미왕의 궁전에서'가 바로 그것. 절묘한 편곡 덕분에 영화의 해당장면을 위해 작곡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곡은 보다 더 웅장하고 장렬한 느낌의 오케스트라 사운드이다.

에르비의 연주, 아버지와 아들의 연주를 비교하며 듣는 것은 클래식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재미다. 아들 파보 예르비는 2005년도에 비전 레이블을 통해 녹음을 내놓았고, 네메 예르비는 이미 1987년에 예텐보리 심포니를 지휘하여 훌륭한 연주를 남겨놓았는데, 그리그 특유의 서늘한 북유럽 사운드를 연출하여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파보 예르비는 자신의 고국 오케스트라인 에스토니아 국립 심포니를 지휘하는데, 짧은 박력과 더불어 성악파트에 대한 섬세한 해석, 게다가 강렬한 리듬을 통해 에너지가 넘치는 연주를 들려준다.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차만큼 녹음된 시기와 해석도 차이가 나지만, 두 연주 바닥에 흐르는 동질감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연주의 우열을 떠나 두 부자의 녹음을 번갈아 듣고 싶다면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은 음악의 위대함이 새삼 느껴진다.



광주비엔날레 학생 단체관람 '딜레마'

목·금요일 집중... 12일 오전 7200명 몰려 작품감상 '대충' 도슨트 해설 불가능... 운영요원들, 작품 훼손될까 진담 재단, 요일별 분산 유도... 일반 관람객 월·화요일 이용

지난 12일 오전 9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도매기시장을 방불케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전시관을 둘러보겠다고 미리 관람을 신청한 광주·전남을 비롯, 전북에서 온 단체 관람객만 3453명, 이날 하루 비엔날레 개막 이래 가장 많은 8752명의 단체 관람객이 찾았고 특히 오전 중에만 7227명이 전시장을 둘러봤다는 게 재단측 설명이다. 오전 관람객만 웬만한 평일 관람객과 하루 적정 관람인원(5632명)을 훌쩍 넘어선다. 전시관 내부는 수천명의 학생들이 전시관, 작품 사이를 떠밀려 다닐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다.

지난 8일 오전 10시40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내 크레익 월시와 일본 출신 히로미 탕고의 '홀-광주' 작품이 설치된 공간 앞에는 보호 펜스가 둘러쳐져 작품 감상이 불가능했다. 3 전시실 내 엑스어반 콜렉티브의 '대피 #2 1분 이내' 작품 앞도 같은 펜스로 막혀 있었다. 지나치게 많은 단체 관람객들이 몰려다니면서 훼손 우려가 큰 작품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일반 관람객조차 감상을 할 수 없게 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심각한 학생 단체 관람객 딜레마에 빠졌다.

예전만 못한 관람객 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단체 관람객 유치에 목을 매고 있지만 일반 관람객들의 작품 감상을 방해하는 '주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한꺼번에 몰려 수박 겉핥기식 감상에 치우치면서 '현대미술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기 위한' 관

람 취지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14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은 초·중·고등학교 단체 관람객은 2만6531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관람객(9만5848명)의 28%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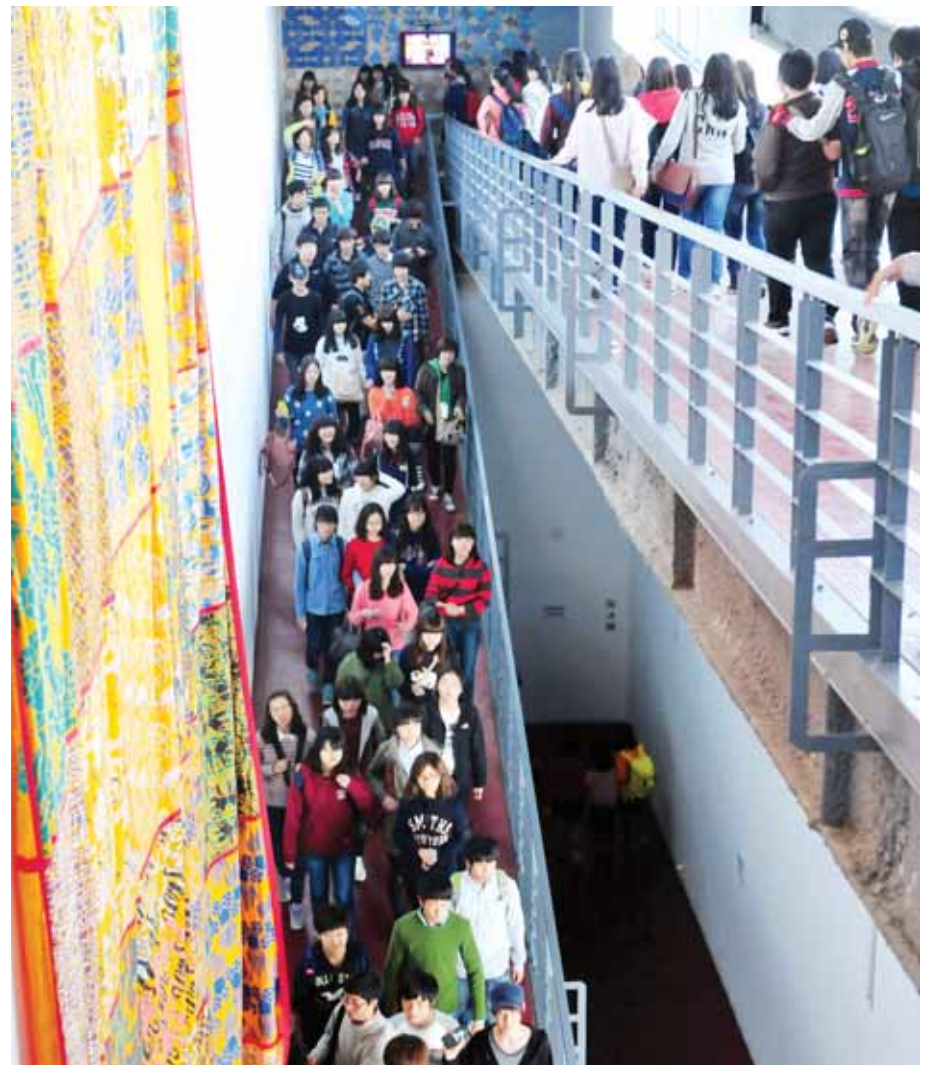
학생들의 수학여행·소풍 등이 몰려 있는 10월의 경우 9월 단체 관람객(54개 단체 1만 275명)을 훌쩍 넘는 4만3600명의 단체 방문객들의 예상되는 상황이다. 당장, 이날 12일 까지 찾은 학생 단체 관람객만 81개 단체 1만6256명에 이른다.

비엔날레 재단은 예년에 못 미치는 관람객 수를 늘리는 데 학생 단체 관람객 유치가 효과적이라고 보고 각 교육청과 학교 등을 상대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학교 대부분이 주 5일제 수업 및 학사 일정 등을 핑계로 목·금요일 등 특정일에 몰리면서 일반 관람객들의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하루동안 8752명의 단체 관람객이 찾았고 오는 19일에도 6731명의 단체 관람객이 관람 신청을 해놓은 상황으로 이 기간 전시관을 찾는 일반 관람객들은 온전한 작품 감상을 포기해야 하는 형편이다.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효과적 작품 감상을 위해 어둡게 해놓은 공간에서도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몰상식한 관람 사례가 잇따르는데다, 단체 관람객들로 인한 작품 훼손 우려로 인해 보호 펜스를 둘러쳐 감상을 봉쇄하는 조치까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통로를 가득 메운 학생단체관람객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학생들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몰릴 경우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도슨트 전시 설명이 힘들어지는 만큼 수박 겉핥기식 감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

비엔날레재단측은 단체 관람객을 요일별로 분산토록 유도시키고 있지만 학사 일정을 내세워 강행하거나 무작정 찾아오는 경

우도 적잖고,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에게 표를 팔지 않을 수도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엔날레 재단 관계자는 "일반 관람객들은 단체 관람객이 적은 주말이나 월·화요일에 전시관을 둘러보는 게 작품 감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속적 교류활동 수필문학발전에 도움"

'영호남수필가 한마음 잔치'... 문학대상에 김정주·김용옥씨

영·호남 수필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영호남수필문학협회는 13일부터 이틀간 담양 성암국제수련원에서 영·호남 수필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영호남수필가 한마음 잔치(사진)'를 개최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는 행사로 울산·대구·부산·광주·전남, 전북 등 6개 지역 회원들이 만나는 뜻깊은 자리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학 강연에 이어 최근의 문학 동향에 대한 회원들간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지속적인 영·호남 교류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올해로 22번째를 맞는 영호남수필문학협 출판 기념회와 제 16회 영호남 수필문학상 시상식 등도 함께 열렸다.

시상식에서는 영호남 수필문학상 대상에 '하늘나라 친구에게'라는 수필을 쓴 울산 출신 김정주씨와 '떨레꽃 그늘 속으로'를 쓴 전북 출신 김용옥씨가 공동 대상을 받았다. 대



구 출신 손경찬 영호남수필문학협회 대구지회장은 공로상을 받았다.

이정선 회장은 "'영·호남 6개 지역 회원들의 지속적 교류 활동을 토대로 수필문학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 수필문학협회는 6개 지역에서 돌아가며 열리며 내년에는 울산에서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북카페 '은새암'

빛나는 아름다운 간판찾기 선정

광주여성재단 북카페 은새암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566돌 한글날 기념 한글로 빛나는 아름다운 간판찾기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광주여성재단 8층에 위치한 북카페 은새암은 도서, 전시 등 여성들의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는 공간이다. 은새암의 뜻은 은은히 웃는 샘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심사위원들은 북카페 은새암은 "순우리말이면서 어감과 의미가 동시에 잘 드러났고 방언인 '새암'으로 표기, 방언도 표준어 못지않은 가치가 있는 우리말 자산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미은기자 mekim@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 (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특별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Be natural Be delicious

주류서비스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음식상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음식상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간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